

태국 북부 카렌족 청년들의 숲과 더불어 살기

이 글은 네덜란드 레이던(Leiden)대학교의 국제아시아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에서 발행하는 *The Newsletter* No.82, Spring 2019에 실린 Chayan Vaddhanaphuti와 Malee Sitthikriengkrai의 “Living with and in the forest in northern Thailand” 를 번역, 편집·정리한 것임.

차얀(Chayan)은 태국 치앙마이대학의 사회과학 학부의 종족연구·개발센터 소장이며, 말리(Malee)는 동 센터의 연구원임.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Chiang Rai)주의 국립삼림보호구역(National Forest Reservation)에 후아이힌랏나이(Huay Hin Lad Nai) 마을이 있다. 이 곳은 스고(Sgaw) 카렌(Karen)족이 사는 동네로, 21가구에 108명의 주민이 산다.

2002년 부족연구소(Tribal Research Institute)의 보고에 따르면, 태국의 카렌족 인구는 438,450명으로, 태국에서 가장 큰 고산족 소수민족이다. 카렌족은 포(Pwo) 카렌과 스고 카렌 등 두 하위집단으로 나뉜다. ‘스고 카렌’은 ‘인간’을 뜻한다. 카렌족의 문화적 삶과 생산 활동은 영적인, 전체론적인 세계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숲은 그들에게 모든 삶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령들의 거주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숲을 큰 경외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대한다.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은 지속가능한 그리고 자기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마을주민들은 그들의 언어로 ‘라이문비엔’(Rai Mun Vien)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이동식 화전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작 방식을 없애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태국 북부의 다른 고산족 마을들은 이미 ‘라이문비엔’ 대신 한 곳에 정착해 환금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치앙마이대학의 종족연구·개발센터(CESD: Center for Ethnic Studies and Development)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 ‘태국 북부의 숲에서 그리고 숲과 더불어 살기’(Living with and in the Forest in Northern Thailand)의 목표는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의 카렌족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을의 역사와 숲에서의 자신들의 삶 그리고 전통적인 이동식 화전경작과 관련된 일상적인 지식과 실제 활동뿐만 아

나라, 숲에서의 생존권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과거 투쟁에 대해 보다 잘 배우도록 그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CESD 프로젝트는 ‘초국경 인문학 프로그램’(HaB: Humanities across Borders programme)의 일부로, HaB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서아프리카 등 세계의 4군데 지역에서 인문학적 지식과 실제 활동을 생산하는 마을 등의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학제적·제도적·국가적 경계를 초월한 대안적 교육을 개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CESD는 HaB의 동남아시아 프로젝트의 현지 파트너다.

카렌족 청년들의 역량 강화

CESD는 마을에서 청년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세대 간 지식 전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 관련해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에는 카렌족의 세 세대가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경험과 외부세계와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후아이힌랏나이 마을 전경

첫 번째 그룹인 만55세 이상의 세대는 공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연 및 숲과 카렌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제의 및 제사의 지도자이자 마을주민들에게 롤모델이 되며, 마을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그룹은 만30세에서 만55세 사이의 주민들로, 이들은 현대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다. 어린 시절 그들은 국가 주도의 정책들과 시장의 압박을 통한 위협들, 특히 마을 일대의 숲에 대한 개발 허가가 개인 사업가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그들은 환경보호와 토지 소유권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의 NGO 활동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다른 종족 그룹들의 활동에 가담했다. 그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여러 경험을 나누었는데, 특히 마을의 권리와 관련된 경험을 교환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시장과 국가 정책과 협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세 번째 그룹은 만15세에서 만30세 사이의 청년 세대로, 이들은 대부분 최소한 초등교육 수준까지는 학교에 다녔다. 이들은 마을 외부로 나가 공교육을 받고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마을에 남아 있는 것을 선택했다. 이들은 외부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앞의 두 세대들보다 더욱 크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마을 밖으로 나가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제1세대와 제2세대의 경험은 제3세대의 것과 크게 다른데, 그것은 특히 숲에서의 생활과 마을

외부인들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다. 예컨대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와의 협상이나 정부에 대한 항의 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다. 대신 그들은 다른 종류의 임산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CESD 프로젝트는 카렌족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아버지 및 할아버지 세대에게서 그들 자신의 문화와 마을의 배경과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자신들만의 학습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토착적 지식과 그 생산 과정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한다.



순환적 농사 방식에 따라 숲에서 채집하는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의 한 주민

교실 밖에서의 학습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에서의 학습은 마을 내에서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간 지식 전달의 형태로, 마을주민과 외부 사람들 즉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 NGO들, 학자들 간 상호작용과 교환 등의 형태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측면에 수반하여, CESD 프로젝트는 숲에서의 삶 및 삼림 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실제 활동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세대들의 ‘교실 밖에서의 학습’ 특히 마을의 두 주요 영역에서의 학습이 포함된다. 즉 ① 고산지대 벼농사의 일상적인 실생활을 통한 학습 ② 마을 외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정책과 협상하는 것을 배우기

1) 고산지대 벼농사의 일상적인 실제 활동을 통한 학습

이동식 화전경작이 식량 안보를 지켜주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림 공무원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는 화전경작이 삼림 벌채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의 이동식 경작은 단기 경작과 7년의 장기 휴경이라는 순환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카렌족 농민들은 순환식으로 사용하는 자신들의 재배지에 벼 외에도 50가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재배한다.

라이문비엔의 실체는 의례주관자 즉 헤코(heckho)가 이끄는 다양한 의식 행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이 참가한다. 어떤 의례에서는 미혼의 젊은 남녀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이문비엔은 다양한 연령과 경험을 가진 카렌족 사람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그리하여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의 청년들은 노년 세대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와 함께 발전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CESD 프로젝트는 청년 세대가 산악지대에서 벼재배의 실재를 통해 노년 세대로부터 학습하는 것에, 그리고 그들이 라이문비엔의 순환적 주기를 숲에서의 생활의 한 통합된 부분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



후아이힌랏나이 마을 카렌족 주민들의 순환식 농사 현장

2) 마을 외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두 번째 포커스는 마을주민들이 다른 방안들,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한 항의 운동과 외부인들과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또 연구와 마을의 지도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통해 국가 정책과 협상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놓여졌다.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그들의 전통적인 이동식 화전경작 대신 항구적인 곡물 재배를 도입하려는 개발 프로젝트와 국가 정책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아 왔다. 게다가 이 마을은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삼림의 촌락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정책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지배적인 ‘보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시행된 것으로 ‘보호구역’ 설립을 강조하는 서양의 아이디어와 컨셉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국가는 보호구역 삼림을 확대하고 촌락주민들에게 그 구역 내에 사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다.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주민들은 1983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국가 권력에 직면했으나,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전통적인 벼재배 방식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예컨대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그룹 및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그리하여 1994년 소수민족 종족 그룹들, 학자들, NGO들은 함께 ‘마을 숲 관리법’(Community Forestry Bill)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1989년 정부의 삼림청이 제안한 것과 달랐다. 비록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 운동을 통해 당시 젊은이들(오늘날 제2세대)은 마을의 권리와 이를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되었다.

소수종족 그룹들은 정부가 보호구역을 선포하기 전부터 자신들의 마을에서 살아 왔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NGO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그들이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돕기 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은 NGO들과 삼림 관리 공무원들과 협력해 라이문비엔이 화전경작과는 다른 토착적 지식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리고 자신들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의 토지 사용을 묘사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 왔

다.

마을주민들 특히 제2세대는 외부인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그리고 향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카렌족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대처하는 지식, 정부 기관들과 협상하는 방식 그리고 국가의 억압과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개발 압력에 직면해 자신들의 전통적인 이동식 화전경작을 유지하고 방어하는 방법을 획득해 왔다. 그에 비해 제3세대는 향의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CESD 프로젝트는 그들이 윗 세대 주민들에게서 배우도록 권한다.

지식의 공동 생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CESD는 청년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 생태환경, 정체성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통찰력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량 개발의 교육학적 접근 방식을 이용한다. 그와 동시에 CESD는 청년들이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그에 따라 보수적인 교육 환경의 강의 및 텍스트 기반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있는 카렌족 청년들과 직접 함께 일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학자들과 마을주민들 간의 지식의 공동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조사에 참여한 후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발표하는 카렌족 청년들

1) 지역의 역사 공부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자신의 마을에 대한 (타이어로 된) 공식적인 역사 기록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족 언어로 된 마을 역사까지도 공부하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마을의 역사적 배경, 가족 및 친족 구조,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토착적 지식, 국가 정책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해 마을 어른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치앙마이대학의 학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록된 자료들을 타이어로 옮기고 편집하고 토의했다. 또 마을을 방문한 외국의 학생들과 협력해 몇몇 마을주민들의 전기(傳記)를 기록해 그것을 소책자에 수집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의 1차 분석은 지난 100년 동안의 마을의 변화와 사회적 변동의 패턴에 집중되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한 친족 지도와 디지털화된 마을의 시간 배열표가 작성되었다. 디지털화된 마을의 시간표는 마을 내부의 사건들과 보다 넓은 사회·정치적 맥락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2) 영상 제작

카렌족 청년들은 카렌족의 전통적인 삼림 생활과 자원 운영의 실제 방식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권유받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외국 학생들과 함께 짧은 다큐 영상물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3) 실제 행위를 통해 배우는 것을 기록하기

전통적으로 후아이힌랏나이 마을 청년들은 숲에서의 삶과 라이문비엔에 관한 지식을 실제 행위를 통해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행과 참여를 통해 획득한다. 예컨대 어린이들은 순환적인 농사 방식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부모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배운다. 이로써 이동식 화전경작은 지식과 문화적 전통을 전수하고 세대 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된다.

또 상호작용의 다른 현장들도 청년들이 마을 어른들로부터 지식을 얻는 학습의 공간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은 장례식이나 신년 축제 같은 제의 행사다. CESD 프로젝트는 카렌족 청년들이 이러한 실제 행위들을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고무하고 가르친다.



마을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카렌족 청년들

4) 전통적인 흐타(Hta)를 통해 학습하기

카렌족은 전통적으로 글로 쓰지 않고 말로써 그리고 시각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전달해 왔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스스로 겪은 자신들의 경험 외에 노래로 불려지거나 말해지는 조상들의 ‘말씀’인 전통적인 시가(詩歌) 흐타(Hta)에서도 배운다. 세대를 이어 전승되어 온 Hta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카렌족의 가치들을 노래한다. 카렌족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의 주제가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갖거나 논쟁적인 것이라고 간주될 때, Hta가 그것을 표현하는 문화적인 적절한 수단으로 통한다. 이에 CESD 프로젝트는 카렌족 마을에서 전통적인 Hta 운문들의 사용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다.

5) 다른 마을들과의 교류

CESD는 후아이힌랏나이 마을과 다른 카렌족 및 다른 소수종족 마을들과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목적은 주류 사회로부터 오는 개발의 의미와 그 위협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청년들 사이에서 더욱 증대되고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2018년 9월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의 카렌족 청년들은 북부 태국의 반농따오(Ban Nong Tao) 카렌족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 마을은 이동식 경작 대신 환금작물 재배를 도입했다. 그리고 후아이힌랏나이 마을과는 달리 이 마을의 청년 중 다수가 마을 외부로 나가 일하며 마약 중독에 빠지고 자신들의 종족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 마을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카렌족 문화를 회복하려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아이힌랏나이 마을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일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은 숲에서의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경험을 반농따오 마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숲에서의 매일의 학습 경험과 이동식 경작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왜 우리들의 문화를 부끄러워 하고 그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들이 집에 있으면서 돼지와 닭을 기르고 라이문비엔을 하면 행복하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변하는 게 없죠. 일찍 일어나 아침 먹고 교실에 앉고 숙제하고 밤에 잠자죠.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똑 같은 패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후아이힌랏나이 마을 청년들은 반농따오 마을을 방문한 것이 자신들에게 다른 소수종족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빠르고 큰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마을의 상황에 대해 또 그러한 변화 과정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방안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